



미래를 우리 손으로

E-mail : pressjde@pukyong.ac.kr
facebook : www.facebook.com/pressbkj

부경대신문

다음 발행일은
5월 22일(월)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The Pukyongdae Shinmun / 발행인 총장 김영섭 / 주간 한혜경 / 편집국장 정다은 / 편집국 629-6922 / FAX 626-2169 / 인쇄처 부산일보사 <개교기념호>



우리대학 링크플러스 사업 선정

세 가지 계획으로 산학협력 성과 대표 브랜드 창출할 예정

우리대학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링크플러스·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링크플러스 사업이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과 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링크플러스의 사업 모델에는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이 있다.

우리대학의 사업모델은 산학협력 고도화형으로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 중 특히 산학협력 고도화형 모델에 선정된 대학은 1·2 단계 평가를 거쳤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기본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포플러 평가를 통해 110개교 내외의 대학이 선정되었다. 2단계에서는 110개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및 발표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각 권역별로 10개교 내외를, 권역별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교 내외를 선정하였다. 우리대학의 경우 동남권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선정되어 최고 금액 25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우리대학 링크사업단 단장 토목공학과 서용철 교수는 "산학협력 성과를 통한 대

표 브랜드 창출 계획을 학생 위주와 지역 연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및 활용 계획이 타 대학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뚜렷하고,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산업 융합본부 설치와 인재개발원 흡수 운영 방안은 독창성이 우수한 새로운 모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대학의 산학협력 성과 대표 브랜드 창출 계획은 △용당캠퍼스 드래곤밸리 집적화 △디디돌 시스템 △산학돌 시스템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용당캠퍼스 드래곤밸리 집적화, 안정화, 고도화 지속을 위한 자립화 계획으로는 △IEM △PEM △DEM 수립 등이 있다.

IEM(Industrial Expansion & Materialization)은 산학협력 성과 실용화 및 글로벌 확산 계획으로, PEM과 연계되어 창업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PEM(Pukyong Enterprise Membership)은 회원제 가족회사 사업으로 입주가족기업과 창업연구년 요소로 구성된다. 그 중 ICC-STEP(단계별 기업성장 프로그램)으로 입주가족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연구년은 실험실·학생 중심 창업(벤처)기업과 학교기업을 지원한다. PEM

은 IEM과 연계하여 창업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DEM(Desig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은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이다. 지역산업혁신인재전형으로 전공특성화교육, 사회맞춤형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연계전공을 활용하여 △전공특성화교육 △사회맞춤형교육 △글로벌 융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디디돌 시스템은 디디돌 인재 선발에서 대학생 창업까지 체계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이며, 세 번째 산학돌 시스템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의 임용·정착, 산학실적, 승진·재임용 지원 시스템이다.

이번 링크플러스 사업 유치로 인해 우리대학의 용당캠퍼스를 부·울·경 기업들에게 개방해 산학연 혁신캠퍼스로 만드는 드래곤밸리 구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받은 250억 원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 개선 △산학협력 기업 지원 △산학공동기술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서 교수는 "사회친화형 산학협력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융합 창의인재를 양성할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다운 기자
presside@pukyong.ac.kr

강세홍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지난 4월 10일(월), 재미 교포 사업가 강세홍 회장이 우리대학 명예수산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부산수산대학을 졸업한 강 회장은 지난 51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미이용 수산물의 이용방안 개발과 한국 수산물의 미국 수출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징그러운 외형 때문에 식용으로 쓰지 않던 꼬끼리조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이를 고급 식재료로 부상시켰고, 시애틀에 최초의 한·미 합작기업을 창업하여 전통적 조업 방식에서 벗어난 은대구 어업의 길을 열었다. 또한 한인 최초로 미국 서북부 지역에 수산업 회사인 SKS트레이딩을 설립해 국제적인 수산물 종합 무역회사로 발전시키며 한국인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러한 공적을 높이 사 지난 2008년, 우리대학은 강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부경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도혜지 기자
pressdhj@pukyong.ac.kr

부경 CEO 행복인문학 콘서트 개최돼

지난 4월 6일(목), 우리대학 소민홀(A21)에서 '2017 부경 CEO 행복인문학 콘서트' 제1강이 개최됐다.

제1강 강사로 나선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 '세종 시대의 인재 등용'을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2일(목)까지 △신병주 교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 △김영수 사학자가 차례로 강연을 한다.

한편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2014년 처음 개최된 이 인문학 콘서트는 부·울·경 지역 CEO 및 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격주 목요일마다 소민홀(A21)에서 오전 7시부터 100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박고경 기자
presspkk@pukyong.ac.kr

2017 PKNU 스타트업 로드쇼 개최

지난 4월 6일(목), 우리대학 동원장보고관에서 '2017 PKNU 스타트업 로드쇼'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우리대학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URP사업단이 주최하여 창업을 꿈꾸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에게 정부지원 정책, 창업 선배들의 창업 성과 등 실속 있는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패널 전시 △대학생 창업동아리 모집 △창업 성과 공유 행사 △창업아이템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스타트업 로드쇼 행사 중 하나인 'PKNU Start-up 세미나'에서는 우리대학 용당캠퍼스가 청년창업과 산학협력 공간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박재은 기자
presspje@pukyong.ac.kr

창과 방패

정상 국가를 향한 발걸음



정다운
편집국장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던 4년을 필자는 '잃어버린 4년'이라 칭하고 싶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초, 박근혜 정부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잠재성장률은 3% 중반에서 2%대 후반으로까지 떨어졌다. 지난 2월 고용률은 59%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30만명을 넘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커녕 3만 달러도 넘지 못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역시 지키지 못했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치솟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을 뿐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양적 성장을 이룩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질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때는 2015년 여름, 필자가 수습기자 딱지를 막 떼 그쯤, 인터넷상에는 '금수저·흙수저론'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에 더해 '헬조선'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했다. 금수저·흙수저론, 헬조선. 언뜻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일지는 몰라도, 해당 단어들은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서글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노력한 만큼 행복할 수 없는 사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국가. 비정상이면 비정상이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통'의 아이콘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통하는 모습에 환호하는 모습,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열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또 한 번 깨달았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국가지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겼던 지난 4년. 후퇴라고 불지언정, 결코 질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잃어버린 해가 5년에 이르지 않고 4년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4년이 막을 내리고 지난 10일(수) 새 정부가 출범했다.

며칠 전, 필자는 페이스북에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았다. 어느 청년이 이야기했다.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바라며 할 정도로 병든, 비정상국가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건강한 국가라면, 응당 자신이 노력한 만큼 행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겨우내 밝혔던 촛불로 일구어낸 잠미대선,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만들어낸 정권교체.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기에, 이번 정권에 거는 기대가 몹시 크다.

문재인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그동안 병들고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사회를 우선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소통하는 지도자가 있는 국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상을 탈피하고 정상 국가를 이룩하는 것, 그보다 더 급선무인 것은 없다. 정상(頂上)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상(正常) 국가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우리대학의 대비는

자율개선 대학 선정을 목표로 1단계 평가지표 충족 위해 노력 중

지난 3월 9일(목), 교육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 하에 실시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주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5년에 1주기 평가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우리대학은 B등급을 받아 4%의 정원을 감축하였다. 오는 2018년 3월, △2015년 △2016년 △2017년 성과를 바탕으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해 △A △B △C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후 C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해 △D △E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제한하였다.

이번 2주기 평가는 1·2단계 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에서는 1주기 평가와 동일하지만, 1주기와 다르게 다섯 등급으로 나누지 않는다. 1단계 평가에서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대학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해 등급 구분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는다.

이후 이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2단계 평가를 통해 각 대학들을 △X △Y △Z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Y △Z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다.

1단계 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

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 진단하는 것, 2단계 평가는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각 단계 평가의 평가항목은 이렇다. 1단계 평가 항목은 △대학 특화 전략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교육성과 △학생지원, 2단계 항목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이다.

각 항목에 속한 평가지표들은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 지표는 지난 1주기와 비슷한 듯하나, 2단계에서 실시했던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정원조정의 연계성 △교육과정·강의 개선이 1단계로 변경되고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

계, 법인채무성 등의 지표가 신설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대학은 2단계 평가까지 거치지 않고,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어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1주기 평가 때 우리대학은 정성적 평가지표를 충족하고, 대부분 정량적 평가지표의 평균에 도달했지만,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의 규모의 적절성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세 지표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산학기획팀 강민경 주무관은 "해당 지표들은 1주기 평가 때 평균보다 조금 부족했다"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의 경우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의 규모의 적절성 역시 2015년부터 차츰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강 주무관은 "지표 관련 부서로부터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아 1주기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있고, 우리대학이 처음 평가받는 지표는 연구하여 대비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이 노력하는 만큼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생 취업을 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향상되기 힘든 지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주기 평균보다 높은 값을 만점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다는 기자
pressjde@pukyong.ac.kr

■ [일반대] 평가지표 및 배점 (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비고	지표별 고려사항	1주기 배점
	1단계	2단계				
대학 특화 전략 (8)	5		<정성> 계획(또는 전략)의 수립추진성과	2→1단계		10
	3		<정성> 정원 조정의 연계성	2→1단계		5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1)	10		<정성> 교육과정간의 개선	2→1단계		10
	11		<정량/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설립	8+4
교육 여건 (16)	8		<정량/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설립	8
	3		<정량> 교사 확보율			5
	5		<정량> 교육비 환원율		설립	5
교육 성과 (15)	8		<정량> 학생 충원율		지역	8
	5		<정량> 졸업생 취업률		계열/지역	5
	2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학생 지원 (15)	5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규모	5
	3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규모	3
	5		<정량> 장학금 지원			5
	2		<정성> 취업역량 지원		규모	2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0)		5	<정성>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5
		5	<정성>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5
지역사회 협력기여		5	<정성> 지역 사회 협력기여	신규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5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신규		
		5	<정성/정량> 재정회계, 법인채무성	신규	설립	
소계	75	25				

훈 소리&알아봤습니다

교내 음주로 인한 문제들

교내 잔디밭에 앉아 동기들과 맥주 한 캔 마시는 것, 대학 생활의 로망 중 하나이다. 특히 중간고사가 끝난 요즘 학우들은 이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과방, 동아리방, 노르웨이 숲에서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먼저 학우들의 교내 음주로 인해 술병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음주를 하며 함께 시킨 배달음식은 처리하기 난처해 쓰레기통에 통째로 버리거나 과방 혹은 동아리방 앞에 두곤 한다. 이 경우 복도에 음식물 냄새가 나 많은 학우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소음 역시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과방이나 동아리방에서 큰소리로 술 게임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우리대학 익명 제보 사이트인 '부경인'을 통해서도 술하게 제보되어 왔던 내용이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교내에서 밤중에 음주를 하는 행위는 학우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학우들의 자유를 위해 음주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더라도, 학교 측에서 캠페인 실시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 학우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서연(신문방송·2016)

박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내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음주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학우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복지과 제희근 팀장은 "교내 음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고 축제 등 음주가 허용되는 특별한 행사 때는 학생회에서 환경 미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교내 음주로 인한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대학 본부에서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내 음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팀장은 "대학생이라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교내 음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기존 학칙으로 처벌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교내 음주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학우의 의견에 대해 제 팀장은 "현재는 계획이 없으나 교내 음주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로등이 필요한 캠퍼스

우리대학 대연캠퍼스에서는 자정이 지난 늦은 시각에도 많은 학우들이 지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 바로 앞에 변화가가 있으며 학교 안에는 세종 1관, 세종 2관(E12) 그리고 행복기숙사(E30)까지 총 3개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두운 밤에도 통근 시간인 새벽 1시에 맞추어 기숙사로 돌아가는 학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 또한 자정이 넘은 시각이 되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기숙사로 갈 때 보통 동원 장보고관에서 중앙도서관(E14) 뒤쪽에 있는 길을 이용하는데 그 길에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가로등의 불빛이 약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가까워도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로등이 켜져 있는 환한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대학은 많은 학우들이 늦은 밤에도 환한 캠퍼스를 거닐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에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내 가로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학우들이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재경(신문방송·2017)

박다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대학 대연캠퍼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큰 도로나 건물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외진 곳이나 공사 중인 곳은 가로등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우들이 늦은 시각에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시설과 오승호 주무관은 "우리대학은 이전에 방전등이었던 가로등을 2014년도에 LED조명으로 모두 교체했다"며 "우리대학 내에 설치된 가로등 사이의 간격은 10~20m 이내로 굉장히 밝은 편이다"고 전했습니다.

교내 가로등 점검에 대해 오 주무관은 "학기별로 방학 전후에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상청 데이터의 일출과 일몰 시간에 따라 가로등 시간을 조정한다"며 "누전이나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 주무관은 "신축 건물의 경우 공사 완공 시점에 가로등이 전면 재배치 될 것이다"며 "가로등은 학우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을 시설과 또는 학과사무실로 전달하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군기 논란

학생회 측 개선의지 보이지만 학우들과의 소통 미흡한 것으로 보여...

우리대학 학우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부경인'에 우리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생시) 내의 군기문화에 대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14일(금), 부경인에 우리대학 수산과학대학(수산대) 학생회 내에서 군기를 잡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본 학우들은 그 글의 당사자들이 수산대 학생회 소속이 아닌 해생시 학우들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후 부경인에 'ㅎㅇㅅㅅㅅㅅㅅㅅ 군기'라는 제목으로 해생시 내의 군기 문화에 대한 글이 올라왔고, 계속해서 해당 학부 내에서 발생한 군기 및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생시 학생회비 내역서와 함께 학부 학생회비가 '임원단 교체식'이라는 명목으로 백만 원 가량 쓰였다는 제보글도 올라왔다. 결국 지난 4월 16일(일), 해생시 학부회장이 부경인에 사과문을 올렸다.

부경인에 게시된 제보글과 부경대신문에 직접 제보한 추가 제보자들의 제보를 정리한 결과, 해당 학부 내에 있었던 군기문화와 가혹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학부 행사 혹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학부 행사 참석 강요 △학부 행사 시 의자에서 등 떼고 앉기 △학부 행사 뒷풀이 후 귀가 시 테이블마다 허락 받기 △선배 번호 물어볼 때 번호 하나당 술 한 잔씩 마시게 하기 △장기자랑 강요 △선배에게 인사하지 않을 시 학과 행사에서 후배를 대상으로 혼낸 △여학우회 당시 '뭉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에서 남자 성기를 묘사하라는 분위기 조성 등이 있다.

평상시에도 △나이에 관계없는 학번제로, 학번이 높으면 존댓말 사용 △학부 건물에서 반바지, 추리닝,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의 군기문화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재작년에는 해당 학부 13학번이 14학번을 구타한 후 14학번이 15학

번을 구타했고 작년에는 14학번이 15학번을 구타한 후 15학번이 16학번을 구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해생시 김태열(2015) 회장은 "제보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학부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과 행사 시 혼을 낸 것과 선배가 후배를 줄줄이 구타한 것 역시 이전에는 행해졌던 사실이지만 올해에는 후배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처음에는 선배라 부르지만 친해지면 편하게 호칭을 쓰는 학우들이 대부분"이라며 "학번이 높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친해진 학우끼리는 반말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흔날 때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뒤에서 따로 감시하는 사람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경대신문으로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들 역시 앞의 제보들에 대해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특히 익명의 제보자 A는 "이런 제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나 사진 같은 증거자료가 없는 이유는 학과 행사에서 군기를 잡을 시 학우들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고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감시하기 때문"이라며 김 회장과는 상반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 B 또한 "학과 행사 시 군기를 잡을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라 하는데 학우들이 제대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지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태의 해결에 대해 김 회장은 "17학번과 16학번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 듯하다"며 "어떻게 자리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학생회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해생시 학생회의 대응에 한 제보자는 "사과문에서 학부 학우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사과문 게시 이후 군기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대학 정문과 동원 장보고관 사이에 걸려있는 군기문화 근절 현수막.

전혀 공지 받은 사항이 없다"며 "다시 같은 상황으로 돌아 갈까봐 걱정하는 학우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생시 흥철훈 학부장은 "학부 조교를 통해 부경인에 올라온 주요 글을 다섯 장 정도 보았는데, 무기명으로 올렸고 학생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교수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회 임원단 교체의 명목으로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 전임 학생회장을 불러 확인을 해보신 돈이 60만원 가량이고 참여한 학생이 20명쯤 된다"며 "사용된 돈이 한 사람당 3만원도 되지 않고 행사를 연 입장에서는 쓸 만했으나 추후에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부경인 내에서는 해당 학부의 군기문화가 크게 논란되었으나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듯했다. 우리대학 학생복지과 제희근 팀장은 "처음 접하는 사실"이라며 "부경인에 올라온 글들

을 읽어봤는데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 팀장은 "우선 해당 학부와 학생회에 연락해 이 글들의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올바르게 알리지 않은 대학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장담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이번 학기 안에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정문에서 동원 장보고관으로 가는 길에는 군기문화 근절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여전히 군기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군기문화에 대한 학우들의 경각심과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군기잡는 행위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않도록 해생시 전체 학우들과 학생회, 교수들 그리고 대학본부는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지홍 기자
pressjih@pukyong.ac.kr

취재수첩

기꺼이 '남용' 하겠습니다



임지홍

대학기획부 부장

이번 취재는 신문사의 다른 기자가 지금까지 봤던 취재 중에서 '역대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부경인

에 해당 학부의 군기문화를 제보하는 글이 하나 돌췌 올라올 때부터 취재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취재는 순탄치 않았다. 취재원의 답변 거부와 관계자들의 갑작스런 분노 표출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취재원의 공격적인 말들을 듣는 것이었다.

살면서 남용이란 말을 듣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남용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들을 줄은, 더군다나 취재원에게 언론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취재를 하는 도중 만난 한 관계자로부터 '일개 학생이 어떤 권리로 취재를 하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사실 필자는 일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대학 대학기구인 부경인론사에 속해 있는 부경대신문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대학 학우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더불어 우리대학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발전과 우리대학 학우들을 위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취재원은 필자의 기사가 학부를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했는데, 학부를 망치는 것은 필자의 기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부조리를 보며 방관하거나 이어 온 몇몇 학생들이다.

필자는 기자로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

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사를 작성할 때 필자가 옳고 그름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어떤 권리'냐고 말한 당신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취재를 하는 것은 학부를 망치려는 필자의 의도도 아니고 필자의 권리로 아니다. 그저 우리대학 학우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사실을 전달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이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언론 남용이라고 칭한다면 필자는 기꺼이 남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번 취재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과정에서 남용하는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해당 학부에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기사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반론한다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

인터뷰 - 강동현(중국·2010)

“잊지 못할 동부산 여행을 선물합니다!”



▲강동현 학우

지난 4월 24일(월), 우리대학 특성화사업단인 마이스(MICE) 인재양성 사업단 소속의 김환진(중국·2012), 강동현(중국·2010), 송마오(중국·2015) 학우가 부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동부산 인생 샷 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개발

한 관광상품을 우리대학 마이스 사업단과 협약된 아주월드투어와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세 명의 학우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이 가진 지역적 특색과 매력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시간, 가격, 경로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관광코스

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정겹고 따뜻한 추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학우들이 직접 관광코스를 안내하는 등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부산의 매력과 멋을 알려주는 ‘동부산 인생 샷 투어’ 개발자 중 강동현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동부산 인생 샷 투어’ 관광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강 학우는 “하루 코스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의 탁 트인 시원한 바다와 화려한 도시의 모습들을 조화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관광상품”이라고 전했다. 이 관광상품은 남포 또는 서면에서 관광객들을 픽업하여 영도 절변해변로, 송정 해변 철길, 해변카페, 해동 용공사, 동부산 아울렛, 기장 죽성 성당, 두호 행복마을, 동백섬, 더베이 101 등을 돌아보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 학우는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싶었다”며 “부산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곳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부산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을 만한 동부산을 배경으로 개발했다”는 훈훈한 동기를 밝혔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다른 부산 관광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강 학우는 “인생 샷과 바다라는 큰 주제로, 부산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구성한 코스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곳 등 젊은 감각이 담긴 장소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요소로 여겨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시간, 경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볼거리가 많은 장소들을 불가피하게 제외

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국인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강 학우는 이 관광상품이 기존의 전문 관광상품과 차이가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의 숨은 볼거리를 바탕으로 코스를 구성했으니 우리대학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학우는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떠나는 서부산 여행 △템플스테이 △온천을 주제로 한 힐링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박고경 기자
presspkk@pukyong.ac.kr
박다빈 기자
presspdb@pukyong.ac.kr

학내단신

2017학년도 후기 정시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우리대학이 2017학년도 후기 정시 일반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81개의 석사학과, 80개의 박사학과에서 모집을 실시하며 석사과정 217명, 박사과정 88명으로 총 305명의 인원을 모집한다.

모집은 지난 11일(목)부터 인터

넷 원서 접수 방식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19일(금) 마감한다. 구술고사는 오는 6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이를 동안 실시되며, 오는 6월 14일(수) 오후 2시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합격자 발표 후 현금등록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일(수)까지

이다.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관련 방문 상담은 대학본부(A11) 1층 대학원 행정실에서 가능하며,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윤 기자
pressjy@pukyong.ac.kr



방치된 자전거

우리대학 학생생활관 세종2관(E12)은 분리수거함 공사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철거를 공지하고 학우들에게 자발적인 자전거 이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자전거와 쓰레기들이 남아있다.

박재은 기자

■재조명-제745호 ‘백경 대동제, 성황리에 막 내렸지만...’ 그 후

백경 대동제, 강화된 안전 대책 수립 중

지난해 6월 7일(화) 발행된 부경대 신문 제745호에는 “백경 대동제, 성황리에 막 내렸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당시 발생했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다뤘다.

지난 백경 대동제에서는 많은 인파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특히 학우 2명이 채광장에서 추락한 사고는 텔레비전 뉴스에까지 언급될 정도였다. 당시 임팩트 총학생회 하승곤(토목공·2010) 회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며 변화 의지를 표했다.

지난해 안전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곧 치러질 백경 대동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았다.

축제 준비 절차에 관해 차오름 총학생회 이규빈(시스템경영공·11) 회장은 “행사 계획서 및 세부 내용 등은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복지과 김건한 주무관은 “비상 상황 대처 매뉴얼을 남구청에 제출해 심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이 회장은 “자원봉사단을 약 90

명 정도로 대폭 늘렸다”며 “자원봉사단과 학생 안전 지도자가 조를 이루어 각 건물 옥상마다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의 기준을 강화, 위험 지역 범위를 확대했다”며 “지나해는 무대 근처 안전을 중심으로 인원을 배치했다면, 이번에는 축제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고 대처 매뉴얼에 관해 김주무관은 “화재 취약 구역 사전점검과 주기적 순찰이 있을 예정이다”며 “△사고 진압 △관객 대피 △신고 및 협력 △응급 구호 4개의 조로 나누어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견고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겪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이번 백경 대동제는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무사히 축제를 치르기 위해 총학과 학교 본부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즐거운 축제가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과 적절한 매뉴얼,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지윤 기자
pressjy@pukyong.ac.kr

책 을 품 은 기 자

책 한 권 읽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과 읽을 만한 책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G.K.체스터튼

47. 지하철 독서 여행자

우리는 지하를 관통하는 여행자



박시하/인물과 사상사

지난 한 해 필자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공부를 했었다. 아침의 지하철은 조용하다. 그곳에서 노트를 꺼내 들고 공부를 하면 금세 잠이 쏟아진다. 그러면 잠시 노트를 덮고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한다. 저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일까.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는 아저씨,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들릴 만큼 이어폰 볼륨을 높이고 리듬을 타는 청년, 맞은편에 앉아 매일같이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자고있는 소녀. 이처럼 지하철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필자가 지하철에서 보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지만 간간히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릎 위에 얹은 가방,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책

을 보며 누군가는 미소를, 누군가는 슬픈 표정을 짓는다.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과연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한다.

이 책은 저자가 1년 동안 서울의 지하철을 통해 독서 여행을 하며 지하철 안의 독서 풍경을 담아낸 것이다. 25개의 풍경과 함께 소개되는 책들은 궁금증을 일으키고 독자들을 또 다른 독서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는 저자의 경험을 "저자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한 권의 책 안으로 접히고, 그 접힘이 다시 펼쳐져 자신의 기억들과 섞이고, 또 다른 문장들로 확장되는 놀랍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책이라는 사물 안에는 누군가 그 책 안의 문장들을 써내려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때로는 몇 개의 우주가 담겨 있었다. 시인은 매번 그 우주 속에서 지하철이라는 시공간을 다시 발견했고, 사람을 보았으며, 세계의 비밀들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삶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시인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여행을 통해 '지하철 독서 여행자'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 책 속에 담긴 우주는 그 책을 읽는 독자의 우주와 만난다. 그리고 두 우주의 만남을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지켜보는 저자는 다시 새로운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책을 읽는가? 혹시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지하철을 탈 때 책 한 권을 들고 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하철에서의 독서는 전염이 된다. 누군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면 저쪽 구석에서 다른 누군가가 주섬주섬 자신의 가방에 잠들어 있던 책을 꺼낸다. 지하철에서 독서가 전염되는 모습을 보며 필자 역시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읽을거리를 꺼내든다. 그리고는 함께 책을 읽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묘한 유대감을 느낀다. 다른 지하철 독서 여행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바빠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책 속의 우주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동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든든해진다.

요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가끔 분주한 지하철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책을 꺼내어 읽는 이를 보면 항상 멋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생계에 치여, 학업에 치여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볼 시간도,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책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아주 먼 곳을 여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지하철 독서 여행자들은 지하철 속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저자는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여행한다. 그리고 그 짧은 여행을 하는 동안 독서라는 여행이 더해져 이는 새로운 두 겹의 여행이 된다. 지하철 한 칸, 자신이 앉아있는 가로세로 50센티 남짓의 의자에서 우리는 중세의 유럽에서 머나먼 우주의 외계행성 혹은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여행에는 제약도 한계도 없다. 저자는 독서란 가장 먼 곳까지 꿈꿀 수 있는 행위이자 인간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며, 인생이란 우리가 사는 그것이 아니라 산다고 상상하는 그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책을 읽는다는 것'을 너무 거창한 취미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책을 읽지 바쁘고 시간도 없는 사람은 책을 펼칠 시간도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필자 역시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대학에 들어와 읽은 책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왕복 2시간 거리를 등하교하면서도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등하교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지하철 독서 여행을 떠나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시작이 바로 5분 뒤에 도착하는 지하철에 있다.

많은 이들의 꿈과 사랑과 땀을 운반하는 그곳에서 여행을 떠나자. 타인의 눈치는 보지 말고 책을 펼치자. 그 책이 새로운 사랑과 꿈을 가져다줄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여행자다. 도시의 지하를 관통하며 꿈꾸는 진실한 여행자.

도혜지 기자

pressdhj@pukyong.ac.kr

2017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공개문

○ 2017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 : 총195,907,872천원

-세입예산총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관	항		
자체수입금	교육활동 수입	71,575,775	
	그 밖의 수입	72,000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800,000	
	불용용품 매각수입	10,00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73,000	
	이월금	2,228,136	
	이자수입	250,000	
등록금 등 수입[A]	79,308,911		
국가지원금[B]	73,641,809		
보조금 수입[C]	34,717,472		
수입대체경비 수입[D]	8,239,680		
총계=[E=A+B+C+D]	195,907,872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관	항		
자체수입금	인건비	17,732,088	
	공공요금	2,680,858	
	부서운영공통경비	1,010,663	
단과대학 총액예산		2,872,330	
정액예산	장학금	10,935,830	
	시설비	6,645,277	
	도서비	275,846	
	국제화	598,401	
사업성예산		36,407,618	
예비비		150,000	
등록금 등 수입[A]	79,308,911		
국가지원금[B]	73,641,809		
보조금 수입[C]	34,717,472		
수입대체경비 수입[D]	8,239,680		
총계[E=A+B+C+D]	195,907,872		

※ 기타 자세한 예산 내용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재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인재개발원 진로·취업 프로그램 연간 계획

프로그램 /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8년)	2월 (18년)	
교과목	자기개발 및 진로설계	←→							←→					
	여성의 커리어 디자인	←→							←→					
	취업·창업전략	←→							←→					
개인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입사서류·면접 클리닉	←→												
	모의면접(교직원-학생)	←→												
집단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모집	←→											
	학과(전공)별 진로·취업 프로그램	←→							←→					
	취업포커싱프로그램				←→						←→			
설명회	채용설명·상담회	←→							←→					
단기 집중 프로그램	진로캠프					←→					←→			
	취업캠프					←→					←→			
	대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CDP)					←→					←→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					←→					←→			
	원데이마스터 프로그램			←→						←→				
	커리어우먼 Action plan								←→					
특강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							←→					
	면접기법 특강	←→							←→					
	대(공)기업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		←→						←→					
검사	대(공)기업직무적성검사	←→						←→						
멘토링	졸업선배초청 멘토링									←→				
체험	재학생직무체험				←→						←→			
장학금	스마트인재장학금 지급							인증	지급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오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우리대학 축제의인 ‘백경 대동제’가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 어떤 행사가 열리고, 어떤 안전사고 대비책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지난해 개최된 백경 대동제에서는 학우 2명이 책장창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어떻게 안전 사고에 대비했는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

지난해 우리대학 축제 ‘백경 대동제’에서는 학우 2명이 환경해양대학 책장창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대학 학생복지과는 자원봉사자 인원을 전년도의 2배로 모집하며 공연시작 3시간 전부터 행사종료까지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용당캠퍼스에는 약 60명, 대연캠퍼스에는 약 90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며 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구역에서 공연을 관람하려는 학우들을 막는 것을 중심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또한 무대 공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본부 1층의 종합상황실 (051-629-5051~5)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연캠퍼스에는 부경대 보건소와 무대 원편의 본부석에 총 2개의 의료 지원소사 설치된다. 의료 지원소는 △탈진관객 처치 △환자 응급처치 △응급구급과 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우리대학 학생복지과 김진한 주무관은 “학생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안전을 위해 교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우들 역시 축제 관람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혜지 기자
pressdhj@pukyong.ac.kr

단과대학별 부스 소개(아바위, 주점 순)

공과대학

건축학부-X, 일반 주점
고분자공학과-먹거리 판매, 일반 주점
공업화학과-X, 일반 주점
금속공학과-에이드 판매, 일반 주점
기계공학과-X, 일반 주점
기계설계공학과-X, 일반 주점
기계시스템공학과-X, 일반 주점
방동공조공학과-물풍선 던지기, 일반 주점
소방공학과-동전 던지기, 일반 주점
시스템경영공학부-음료 판매, 일반 주점
신소재시스템공학과-X, 일반 주점
안전공학과-X, 일반 주점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사격, 일반 주점
의공학과-X, 일반 주점
인쇄정보공학과-X, 일반 주점
재료공학과-먹거리 판매, 일반 주점
전기공학과-X, 일반 주점
전자공학과-X, 일반시 선술집
정보통신공학과-X, 복고
제어계측공학과-X, 일반 주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X, 일반 주점
컴퓨터공학과-X, 일반 주점

이색부스 소개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주점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주점 '5월의 크리스마스'
경영대학에서 소개할 이색적인 주점 콘셉트는 국제통상학부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이다. 이 콘셉트는 대동제의 테마인 ‘빛나는 축제’에 맞춰 몽환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살리고, 노르웨이 숲의 등화 같은 느낌을 살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이다. 사과나무를 만들어 한층 더 등화 같은 분위기를 살린 국제통상학부의 주점에는 마녀들과 재치 넘치는 난쟁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주점에 방문하는 공주님, 왕자님을 위한 왕관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거울 포토존, 백설공주 메뉴판 등이 준비되어 있다. 국제통상학부 주점은 오는 17일(수), 18일(목) 이틀간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대학 대연캠퍼스 노르웨이 숲에서 만날 수 있다. 박고경 기자 presspkk@pukyong.ac.kr	백간색 티, 루돌프 머리와, 크리스마스 트리 등 5월에 열리는 우리학교 백경 대동제와 사뭇 어울리지 않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한 주점이 있다. 바로 경제학부 주점이다. 영화 제목인 <월의 크리스마스>를 본떠 만든 5월의 크리스마스가 콘셉트인 경제학부 주점에서는 순대볶음, 제육볶음, 닭 고지, 짬뽕탕 등 다양한 음식을 5000~6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학부 주점에서는 전구, 양말 대신 학교,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부스를 따로 마련하여 손님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수 있는 체험도 진행한다. 경제학부 주점은 오는 17일(수), 18일(목) 노르웨이 숲에서 만날 수 있다. 유혜빈 기자 pressyhb@pukyong.ac.kr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주점 '고스트 파라다이스'	환경해양대학 해양공학과 아바위 부스 '축제에 등장한 고깃집'
물리학과는 매년 주점 콘셉트를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고스트 파라다이스’라는 주점 콘셉트를 기획했다. 콘셉트에 맞춰 주점 분위기를 으스스하게 만들어 귀신의 집처럼 주점을 열고 페이스페인팅을 한 물리학과 학생들이 서빙과 홍보를 한다. 또한 작은 이벤트를 분장을 한 물리학과 학생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부경대학교 물리학과’의 형태로 해시태그를 해준 학우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물리학과 주점 ‘고스트 파라다이스’는 위카하우스 맞은편에 위치한 자연과학1관(B15) 건물 1층 휴게실인 파라다이스에서 오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열린다. 박재은 기자 presspje@pukyong.ac.kr	환경해양대학의 해양공학과에서는 아바위 부스에서 ‘한 썩’을 판매하는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색적인 먹거리를 선보인다. 한 썩이란 단돈 1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과 따뜻한 썩만 판매한다는 신선한 발상으로 인기를 얻으며 최근 일소문을 타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먹는 방법은 빵 선택부터 안에 들어가는 야채, 소스를 차례대로 고르는 샌드위치 집과 유사하다. 자신의 취향대로 썩재소를 골라 양념을 얹고 삼겹살 한 점을 썩에 올려 먹는 것이다. 더불어 느끼한 속을 달래기 위한 에이드도 판매한다. 해양공학과와 아바위 부스는 잔디광장 공연 무대 오른쪽에 설치 될 예정이며, 오는 17일(수)~18일(목)까지 운영된다. 이지윤 기자 pressjyy@pukyong.ac.kr

단과대학별 부스 소개(아바위, 주점 순)		
토목공학과-먹거리 판매, 일반 주점 화학공학과-화공을 이겨라, 일반 주점 IT융합응용공학과-X, 일반 주점	행정학과-X, 그린나이트(파자마)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간호학과 건강체통터, X 물리학과-X, 고스트 파라다이스 미생물학과-X, 일반 주점 응용수학과-X, 일반 주점 통계학과-솜사탕, 평창 동계올림픽 해양스�포츠학과-X, 일반 주점 화학과-X, 주막	환경해양대학 간호학과-헤나, 생태 짝꿍 에너지자원공학과-X, 광 에너지 지구환경과학과-X, 풀 아이들 해양공학과-X, 밀리터리 헌팅캡 해양학과-귀걸이 판매+바자회, 일반 주점 환경공학과-한 썩, 복고·디제이파티 환경대기과학과-네모관에 동전 던지기, Atmosphere ※ 수산과학대학은 11일(목)까지 자료를 받지 못해 기재할 수 없었음.
경영대학 경영학부-X, 블랙 앤 화이트 국제통상학부-X,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경제학과-X, 5월의 크리스마스 국어국문학과-에이드·카테일 판매, 하와이 콘셉트 국제지역학부-X, 카카오 프렌즈 법학과-프리카켓, 임마네주막 사학과-X, 할로윈 산업디자인학과-프리카켓+카테일, 공모 병헌 신문방송학과-X, 하와이 콘셉트 영어영문학과-X, 피자방 유아교육과-X, 유교복투(복숭아) 일어일문학부-X, 이자카야 정치외교학과-다트, 경찰 콘셉트 중국학과-X, 중국 콘셉트(피카오) 패션디자인학과-프리카켓, 울드스틸합탈	환경해양대학 간호학과-헤나, 생태 짝꿍 에너지자원공학과-X, 광 에너지 지구환경과학과-X, 풀 아이들 해양공학과-X, 밀리터리 헌팅캡 해양학과-귀걸이 판매+바자회, 일반 주점 환경공학과-한 썩, 복고·디제이파티 환경대기과학과-네모관에 동전 던지기, Atmosphere ※ 수산과학대학은 11일(목)까지 자료를 받지 못해 기재할 수 없었음.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X, 5월의 크리스마스 국어국문학과-에이드·카테일 판매, 하와이 콘셉트 국제지역학부-X, 카카오 프렌즈 법학과-프리카켓, 임마네주막 사학과-X, 할로윈 산업디자인학과-프리카켓+카테일, 공모 병헌 신문방송학과-X, 하와이 콘셉트 영어영문학과-X, 피자방 유아교육과-X, 유교복투(복숭아) 일어일문학부-X, 이자카야 정치외교학과-다트, 경찰 콘셉트 중국학과-X, 중국 콘셉트(피카오) 패션디자인학과-프리카켓, 울드스틸합탈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간호학과 건강체통터, X 물리학과-X, 고스트 파라다이스 미생물학과-X, 일반 주점 응용수학과-X, 일반 주점 통계학과-솜사탕, 평창 동계올림픽 해양스�포츠학과-X, 일반 주점 화학과-X, 주막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간호학과 건강체통터, X 물리학과-X, 고스트 파라다이스 미생물학과-X, 일반 주점 응용수학과-X, 일반 주점 통계학과-솜사탕, 평창 동계올림픽 해양스�포츠학과-X, 일반 주점 화학과-X, 주막

빛, 나는

청춘들의 향연

16일 (1일차) 행사 일정표

시간	용당캠퍼스	비고
11:00~17:00	인생사진관/부경몬GO	문화거리 행사진행
17:00~18:00	저녁 행사 준비	
18:00~18:15	공대 학장님 소개	
18:15~18:30	총학생회 및 각 단대회장 소개	주점 진행 (용당캠퍼스 삼각주 일대)
18:30~19:00	공대학생회 소개/각 과회장 홍보	
19:00~19:30	O/X퀴즈	
19:30~20:30	미스터리 응모	주점 진행 (대연 캠퍼스 잔디광장, 노르웨이 숲 일대)
20:30~21:00	'사우' 댄스팀 공연	
21:00~	'매드클러운' 공연	

• 인생사진관



나는 것은 사진뿐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용당캠퍼스 일대에서 해당 장소 테마에 맞는 '인생 사진관'을 개설한다. 소품, 촬영기구, 조명, 인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인생사진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 부경몬을 이겨라!

용당캠퍼스 학생회관 앞 부스에서 참가신청을 한 뒤, 지정된 포켓스탑에서 배회하는 부경몬을 이길 경우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를 통해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 추후 코인은 미스터리 응모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 미스터리 응모

낮 행사에 참여해 코인을 얻어 응모권을 소지한 관객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물품에 대한 힌트를 획득하여 미리 공개된 물품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응모권을 사용해 응모하면 된다.

17일 (2일차) 행사 일정표

시간	잔디광장(대연)	비고
11:00~18:00	저녁행사 준비	문화거리 행사진행
11:00~16:00	먹거리 부스	
13:00~16:00	과별 대항전	
14:00~15:00	복면가왕 리허설	
15:00~17:00	동아리 공연 리허설	
18:00~18:30	'메이아' 동아리 공연	
18:30~19:30	'네오쇼크' 동아리 공연	주점 진행 (대연 캠퍼스 잔디광장, 노르웨이 숲 일대)
19:00~20:00	PK 복면가왕	
20:00~20:20	대동제 개최식 (총장님, 총동창회장님, 총학생회, 단대회장 인사)	
20:20~20:40	'테크니컬' 동아리 공연	
20:40~21:00	'UCDC' 동아리 공연	
21:00~21:30	임세준 공연	
21:30~22:00	신용재 공연	

• 과별 대항전

과별로 색관 뒤집기, 단체 풀넙기, 발목풍선 터뜨리기 게임 등을 진행한다. 종목 별로 1등을 한 과에게는 치킨 20마리가 증정된다. 대연캠퍼스 잔디광장에서 과별 대항전을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6일 용당캠퍼스 학과별 부스 배치도.



▲17일 대연캠퍼스 학과별 부스 배치도.

18일 (3일차) 행사 일정표

시간	잔디광장(대연)	비고
11:00~18:00	저녁행사 준비	문화거리 행사진행
13:00~16:00	부경 올림픽	
13:00~14:30	댄스대회 리허설	
14:30~16:00	동아리공연 리허설	
18:00~18:30	'샷물결' 동아리 공연	
18:30~19:00	'씨사운드' 동아리 공연	
19:00~20:30	PK 댄스대회	주점 진행 (대연 캠퍼스 잔디광장, 노르웨이 숲 일대)
20:30~20:50	'모비딕스' 동아리 공연	
20:50~21:00	불꽃 축제	
21:00~	윤도현 밴드 공연	

• 부경 올림픽

대연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미니게임과 수상헌팅레이 두 종목으로 부경 올림픽이 개최된다. 개인전은 선착순으로 모집 받고, 단체전은 3인 1조로 문자 접수를 받는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올림픽에 출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41.1%의 득표율...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화) 오후, 서울 세종로 공원에 도착하여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9일(화)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로, 24.0%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17.1%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1위를 기록했고 특히 호남에서 과반의 득표율을 얻으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충청·강원 등 전국적으로 고른 강세를 보였다. 반면 홍 후보는 경북·대구·경남 등 3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4월 총선 때와는 다르게 호남 표심이 문 대통령에게 쏠리면서 전국에서 득표율 1

위를 기록한 시·도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9일(화) 오후 11시 40분쯤 당선인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면서 “내일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결코 잊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일(수) 취임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욱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천할 공약은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만큼 노동 분야의 공약을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걸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내놓았다. 그밖에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정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며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및 반부패·재벌 세력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이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등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거나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는 등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성평등 공약으로는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폭력 근절 등을 마련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일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돌아보는 ‘장미 대선’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으로 역대 대선과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지난 4일(목)에서 5일(금)까지 진행된 사전 투표는 역대 대선 중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양일간 실시된 사전 투표율은 26.06%, 투표자 수는 1107만 2310명으로 역대 사전 투표 중에서도 투표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서 치러진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가 11.5%, 지난해 4·13 총선이 12.2%였다.

또한 이번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총 여섯 차례 진행된 TV토론 중 최고 시청률은 지난 4월 23일(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으로 38.5%를 기록했다. 직전인 18대 대선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34.9%였다. ‘TV토론을 본 뒤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이 14.6%로 집계된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다. 실제로 같은 여론 조사에서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꼽힌 심 후보는 TV토론을 거듭하며 지지율이 오른 반면 박한 평가를 받은 안 후보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 기간 중 일부 지지자들 간에 충돌도 있었다. 지난 4월 20일(목) 정의당 홈페이지는 전날 심 후보가 당시 문 후보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매우 치열했다.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도 만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 기간이 짧았음에도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는 18대 대선보다 5.4배나 늘었다.

이유진 기자
presslyj@pukyong.ac.kr

취재수첩

더 이상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유진

사회부 부장

‘예의가 뭐기에?’ 최근 들어 필자가 자주 하던 생각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뒷사람이 존재하는 우리는 보통 이들에게 존대를 행한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그래 왔기에 필자 역시도 이를 따랐다.

필자는 앞서 말했듯 예의에 의구심이

들어 ‘존경하여 받들어 대접하거나 대한다’는 의미인 존대의 기원을 알아보려 도서관의 서적들을 뒤적거렸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존대 문화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전통이며,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인 듯했다.

이처럼 예의, 그리고 존대는 문화라는 명목하에 우리에게 ‘의무’로서 자리 잡혀 있었다. 예의 및 존대 문화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에 나름의 결론을 내보려 하던 필자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 후보들의 ‘말 바꾸기’가 이러한 문화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몇몇 대선 후보자들이 말 바꾸기 논란으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낙선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사드 논란이 본격화되고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이처럼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듯했지만 몇 달 전 출마를 선언하며 던져진 사드 찬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전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안 후보의 이러한 입장 변화로 해당 후보를 응원하던 일부 지지층은 “신뢰를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말 바꾸기가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말 바꾸기는 비단 낙선한 후보들만의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상기 후보뿐만 아니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기간 동안 말 바꾸기를 하여 이에 따른 논란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후보자의 어휘 구사력 등이 부족하여 말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언론 및 전문가들은 “말 바꾸기는 다수가 원하는 답을 찾아 다수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이다. 말 바꾸기

는 순수하게 다수가 바라는 삶을 영위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저 다수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말을 바꾼 자들은 해당 행위에 대해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들은 이러한 지탄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다수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말 바꾸기 논란이 빈번하게 등장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예의 및 존대 문화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필자는 ‘이러한 다수에게 미움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서로 배려하려는 문화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해당 문화의 배려한다는 취지 자체는 선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이 다수의 입장만을 추구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 또한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일(화) 당선된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하지만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만큼, 무분별하게 다수의 의견만을 쫓던 전과 같은 태도를 반복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말뚝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효과적 설득전략

◆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화)에 치러지게 되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야 당선될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답게 보인다면 후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설득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광고와 후보 캠프에서 직접 제작하는 유세 동영상도 후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 2012년 재선에 성공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선거 전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국민과 함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전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선을 호소하는 열정 넘치는 유세를 펼친 바 있다. 그때의 유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면 오바마 후보는 화면의 중심에 근엄하게 자리하기보다 화면의 중앙을 정중하게 양보하고 화면의 한 모퉁이에서 정중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내면에 자신이 있기에 외면의 권위를 과시하지 않는 점과 차림으로 국민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TV는 후보의 유세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후보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감을 제고하고 있다. 후보가 유권자와 동떨어져서 연설하기보다 유권자 사이에서 유권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연설하는 장면이 많고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장면에서처럼 유권자들이 후보의 뒤에 자리함으로써 유권자의 공감하는 표정과 몸짓을 생생하게 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본방사수...

달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낙선 의원들이 펼치는 노래와 춤이 포함된 슈퍼문 유세단의 공연은 흥겨운 잔치판을 연상시킨다. ◆ 대통령 선거는 상품으로 보면 고가의 명품인 대통령직을 다루기 때문에 갑자기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품을 담은 광고는 과격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으며 기존의 고품격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편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과 상반되는 선거 전략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연설 방식에 갑작스런 변화를 주었고, 선거 포스터는 과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장영혜 중공업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글자만으로 구성된 광고를 내놓았다. 이러한 설득전략은 유권자에게 잠깐 신선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직을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형성한다. ◆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는 외부에서 주어진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큰 이유이다. 후보자 토론, 유세장과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연설, 광고 등에서 후보자의 이미지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선거 메시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는 후보의 소통 능력을 반영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인용(신문방송) 교수

사회단신

한국, 중국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 합의

지난 4월 26일(수), 인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3국 환경 분야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하여 내년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환경정책 담당자는 "환경협력센터 내에서 △한·중 대기오염 관련 공동연구 △오염저감기술 개발 △현지

실증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3국 모두 미세먼지, 매연 등 대기 오염을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혜빈 기자 pressyhb@pukyong.ac.kr

부경만평

<강빈희>



쉬어가는 코너

아래의 두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다른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잘 찾아보신 뒤 3개 이상을 찾아 대연캠퍼스 나비센터 (B12/구 제2학생회관) 3층, 부경대신문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5천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부경대신문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_____ 학번 : _____
 학과 : _____ H.P : _____

당첨자
 • 정석훈(사학·2017)
 • 황정현(국제지역·2013)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있다. 가정의 달의 기념일들 중 잘 알려지지 않은 기념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은 5월 21일로,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색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분홍색 장미를, 미혼남녀는 개화 안 된 장미를 서로 주고받으며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고 2013년 12월 세계기념일로 승격되었다.

1995년부터 매년 전국 70여 시·도 주최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기념행사에서는 부부 음악제, 부부폭력 제로운동, 세족식 등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러 부부의 날 프로그램 중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주최로 일반 모범시민 부부 대상으로 부부간 금슬로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부에게 부부 상장, 장미 등을 주는 시상식도 매년 열리고 있다.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7~80년 이상 된 세계 최장수 부부 수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세계 부부 현장 또는 부부 백년해로 현장이라 불리는 십

계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십계명에는 '인내하며 다툼을 피하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같이 즐기는 오락이나 취미를 만들라',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경제적, 심리적으로 적당히 독립하라' 등 부부가 함께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어버이 날에 '어머님 은혜'가 있다면, 부부의 날에도 '둘이 하나 되어'라는 부부의 날 노래가 있다. '둘이 하나 되어'는 가수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했으며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잡아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 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처럼 부부간 사랑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곡이다.

이처럼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부부의 날은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달리 많이 알려지지 않고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부부도 흔치 않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부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장미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유혜빈 기자
pressyhb@pukyong.ac.kr

부부라는 건강한 동반자

부부란 수평의 관계일까 수직의 관계일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적 사상 속에서 생활해왔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때의 향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일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곧 이 발언은 큰 이슈가 되었다. 이로부터 다시금 성차별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조건 남자는 경제적 책임을 담당하고 여자는 가사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면 미혼의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성차별이란 이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 속에서 쉽게 모순을 흘려 놓는다.

다른 가정에서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남자가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는 결혼은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로 주부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는다면 또는 남자는 여자보다 둔하고 융통성이 없어 돈을 벌어드는 역할만을 강요받는다면 부부라는 관계는 수많은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하늘

이 정해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란 우리 사회에선 이미 고리타분한 생각이며 버려야 할 가치관이다. 이제는 서로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가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핵심인 기반이고 기둥이다. 만약 부부가 서로를 다른 위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차별적 행동과 발언들을 일상화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건강한 동반자로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곧 자녀들의 학습 모델로 작용해 그 자녀들도 성차별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그들도 평등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부는 수평관계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공동의 가사는 서로에게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누가 누구를 책임진대거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대 부부의 목표인 것이다. 또한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곧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느낀다.

곧 다가올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나라에 많은 부부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갈 나날들의 행복을 기원해 본다.

박다빈 기자
presspdb@pukyong.ac.kr

입양의 날

가슴으로 낳은 날

입양의 날은 5월 11일로,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대 등을 극복하고 입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하고 2006년부터 제1회 입양의 날을 시행하였다. 그 후 2012년 제7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아 동의 권익 보장, 국외 입양의 감축 등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발표하였고, 입양특례법 제26조에 의거해 재단법인 중앙 입양원을 설립하였다.

한편 매년 보건복지부 주최로 5월 11일에 입양가족 대상으로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기념행사에서는 입양에 관하여 전문가가 상세히 알려주는 입양홍보 부스, 가족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비누 만들기, 스티커 타투를 붙일 수 있는 체험 부스 그리고 입양아 대상 가족그림 그리기 대회 등 많은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 외 정부는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입양부모에게 입양수수료 270만원과 입양아가 만 15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5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로 규정하고 양친은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여 입양아가 올바른 가정 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양절차 역시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정부의 입양부모 가정 방문 조사, 입양부모 교육,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입양신고 등 총 9가지로 체계적이고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개인, 민간 업체에서도 입양장려를 위해 사진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작가 조세현 씨는 매년 '천사들의 편지'란 타이틀로 크리스마스 즈음에 연예인과 입양아동을 함께 찍어 흑백사진전을 연다. 사진이 전시된 아이들의 입양률은 전체 입양률인 20%보다 높은 80~90%라고 한다.

이처럼 입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야 할 시기이다.

유혜빈 기자
pressyhb@pukyong.ac.kr

가족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 입양

입양에 대한 진입 장벽이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유별난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핏줄'이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의 관습일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강한 혈연 중심 가족 문화에서 '내 배 알아 낳아야만 내 자식'이라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 입양에 호의적이지만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몬다. 입양 가정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가족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입양 가정을 여는 가정과 다름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체 입양 중 국내 입양 비율 증대를 목표로 삼는 것을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부터 2015년까지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 32.2%, 해외 입양 67.8%로 해외에 입양된 아이가 2배 이상 많다. 2007년 처음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지만 여전히 해외 입양아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

2015년의 통계 자료를 살펴봐도 국내 입양아가 64.6%, 해외 입양아가 35.4%이다. 정부가 2005년 '입양의 날'을 지정하고 국내 입양 캠페인 등을 벌여 해외 입양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므로, 국내 입양 제도는 △경제적 조건 △범죄 경력 유무 △사전 교육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꾸준한 보안을 통해 국내 입양 제도는 입양이 결코 충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견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견고함이 있음에도 간간히 일어나는 파양,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은 입양 조건 강화와 더불어 부부의 인적사항, 재산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입양은 단순히 연민을 베푸는 행동이 아닌 가족이 되는 일이다. 입양을 계획하는 부모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 아동이 입양한 부모로부터 또 다시 버림받는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국내 입양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입양 가정 역시 친밀하고, 영구적인 부모자녀 관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국내 입양 제도는 틈 없이 견고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지윤 기자
pressjy@pukyong.ac.kr



우리가 사랑한 영화

21 어바웃 레이

무지개 빛의 가득할 날을 기다리며



- 개봉 : 2016. 11. 24
- 감독 : 게비 델랄
- 출연 : 나오미 왓츠, 엘르 패닝, 수잔 서랜든
- 장르 : 드라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 젠더는 신문 기사 내에서는 많이 보고 들었지만, 웬지 낯설고 어찌면 스스로 멀리하려 했던 단어였다. 특히 트랜스 젠더는 드라마,

소설 속 주제로도 흔치 않은 나와 다른 세상 속 단어로 여겼다. 이런 필자에게 그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어바웃 레이'다.

어바웃 레이에는 단순히 남성으로 변화하는 레이 얘기뿐만 아니라 레이의 변화를 함께한 레이 가족들의 얘기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16살 소년 레이에는 애인과 함께 사는 레즈비언 외할머니 돌리와 싱글맘 메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레이에는 남자로서 변화하기 위하여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해서 맞고 있다.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레이를 위해 메기는 레이의 성전환 허락서를 받고자 헤어진 남편 크레이그를 찾으러 간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대한 얘기만 나누고, 메기는 레이의 성전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된다.

그 후 레이에는 메기가 크레이그로부터 성전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레이에는 크레이그에게 자신의 성전환 허락을 부탁하면서 가족을 버린 뒤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에게 경멸감을 느낀다.

한편 레이가 자신 모르게 크레이그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메기는 레이를 찾으러 간다. 메기는 자신의 비

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상황을 벗어나려 하던 중 크레이그와 예전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된다. 둘의 대화를 들은 레이에는 자신이 삼촌인 매튜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레이에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메기가 크레이그 동생 매튜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며 절규한다.

사건이 벌어진 후 그들은 각자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한 뒤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에 레이에는 크레이그로부터 성전환 허락서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하기로 한다. 그 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한편 영화 내에는 레이의 할머니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해 강제로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레이가 트랜스 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 급우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현재 성 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로 가장 잘 알려진 배우 홍석천 씨는 자신의 취향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자 수많은 질타와 욕설을 받았다. 심지어 방송출연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성전환 연예인 하리수 씨는 자신을

향한 네티즌의 욕설과 인신 모독성 발언 정도가 심각하여 고소까지 하였다. 이처럼 아직도 성 소수자에 대한 불편한 인식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대통령 후보 TV토론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찬반 의견을 표하는 것 자체가 성 소수자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성 소수자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비가 내린 뒤 하늘을 감싸는 일곱 빛깔의 색동 띠이다. 한 가지 색만이 아닌 일곱 가지 색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보이는 무지개처럼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는 색깔을 보유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성 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성 소수자가 처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유혜빈 기자
pressyhb@pukyong.ac.kr

포토 에세이



봄이 떠오르는 사람

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부슬부슬 봄비를 듬뿍 머금고 있다가 하얀 꽃을 피워내는 봄나무처럼, 머리속에 떠올리고 있으면 마음에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박지윤(법학·2017)

예산편성 현황

2017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편성 현황

□ 예산 현황
○ 예산 편성액 (단위: 천원)

2016학년도(A)	2017학년도(B)	증감(B-A)	비고
19,755,741	18,617,638	△1,138,103	- (A)는 추경포함 최종예산 기준 - (B)는 본예산 기준

○ 영역별 예산 편성액 (단위: 천원)

구분	세입액(A)	예산편성액			계(B)	비율(B/A * 100)
		교육영역	연구영역	학생지도 영역		
2016	72,870,898	3,885,875	9,413,016	6,456,850	19,755,741	27.1
2017	71,575,775	3,372,750	9,185,486	6,059,402	18,617,638	26.0

2016학년도 대학회계 결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2016학년도 대학회계 결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이월액 내역 (단위: 원)

구분	전체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국가지원금 계정	
			세입	세출
세입	예산액	241,387,834,895	136,609,840,985	104,777,993,910
	결산액(A)	229,665,501,382	125,532,792,942	104,132,708,440
	차액	11,722,333,513	11,077,048,043	645,285,470
세출	예산액	241,387,834,895	136,609,840,985	104,777,993,910
	결산액(B)	215,935,647,105	11,995,134,305	95,977,512,800
	차액	25,452,187,790	16,651,706,680	8,800,481,110
세계 잉여금	합계(C=A-B)	13,729,854,277	5,574,658,637	8,155,195,640
	순세계 잉여금	3,394,142,034	3,394,142,034	0
	사고이월금	3,224,505,770	541,899,240	2,682,606,530
	명시이월금	390,669,000	390,669,000	0
	보조금 집행잔액	1,247,948,363	1,247,948,363	0
	국가지원금(1~2월) 집행잔액	5,472,589,110	0	5,472,589,110

시론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과 지식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꼭 알아야 하는 상식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부족해 합리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하여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고, 그 후로 스모그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에 이웃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때마침 독일 회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속인 디젤게이

트가 터져 자동차 오염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충남 지역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이 밀집되는 것을 간과하여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2016년에는 실내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미세먼지는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늘 우리 곁에 있어왔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질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해졌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미세먼지인 줄을 모르고 지내왔다.

불을 피울 때 불꽃이 파란색이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붉으면 불완전연소로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부산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소와 관련된 것은 흡연, 촛불, 향, 자동차, 조리, 숯불구이, 화목난로,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무수히 많다. 1970년대에는 시골에서 땃짐이나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였는데, 하얀 연기의 일부는 굴뚝으로 빠져 나갔

지만, 나머지는 부엌을 가득 채워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였다. 현재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의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것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 실내 공기 오염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저렴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다가 비싼 도시가스로 바꾼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시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급격하게 변하였으나 생활의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크게 변모하였다. 전통적인 가옥은 주방과 화장실이 주거공간과 분리되어 있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연기는 굴뚝을 이용하여 가능한 바깥으로 배출시켰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므로 먼 곳에 배치하였다. 가정에서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곳이 주방과 화장실이다. 이곳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현재 모든 가정에 레인지 후드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의 배기팬은 잘 사용하지만, 레인지 후드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부도 드물다.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1,529,338명인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989,885대로 우리는 자동차의 홍수 시

대에 살고 있다. 도시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주택, 건물 등은 대부분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여 집값도 도로가 잘 발달된 곳이 비싸다. 도로가 넓으면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아 주위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오염이 더 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습관에 익숙해 있다. 우리가 상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최근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직접 먼지 상태로 배출되는 것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대기에서 햇빛, 상대습도 등 기상조건에 따라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양이 훨씬 많다. 또한, 중국, 몽골, 북한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스모그 현상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최근에 발생한 동북아 스모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보다 더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어야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대기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함

부경대신문 뒤집기

18세 투표권 과연 정당한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어온 개헌 바람의 중심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 그중 이 전에도 논의되었던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1월 12일(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끝내 파행했다.

선거연령 하향 찬성 측은 "우리나라 만 18세는 병역, 납세, 근로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데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만 18세는 병역, 근로, 납세 등의 의무가 있지만,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18세는 대입 준비로 바쁜 일과를 보내며 부모님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18세가 처한 여건은 투표권을 행사할 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다수는 지나친 학업 양으로 인해 정치를 접할 기회가 적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파편적인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선동되어 미숙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교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아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에 맞서 찬성 측에서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만 18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이는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선진국 따라가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짧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에만 중점을 두며 상정한 이 사안은 짧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있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부동산정책 등 후보들이 세우는 투표 사안의 대부분은 만 18세가 아직 경험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선택,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판단, 짧은 층의 정치적 관심 증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투표권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주는 만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권민희(신문방송·2016)

소통의 장, 부경대신문

어렸을 때는 매주 종이신문을 받아 보았지만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접하게 되면서 종이신문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다.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한 후 교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부경대신문을 접하면서 종이신문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

부경대신문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대학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기사에 반영되어 있어 공감할 수 있다는 점과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칫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도 일반 신문에 비해 쉽게 풀어나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부경대신문을 읽기 전에는 '인터넷 기사에 비해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3일(월) 발행된 부경대신문 753호에서 교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문제와 같이 우리대학 학우들이 이용하는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교내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어 나와 같은 새내기들이 학교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 좋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박사학위 취소와 같은



▲ 부경대신문 제753호 1면.

다소 무겁고 진지한 기사와 빛깔 축제사진을 동시에 다뤄 사진과 기사의 분위기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기획면의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인식 조사가 시각적으로는 시선을 끌 수 있었지만 정보수집의 인원이 적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소식을 전해주는 부경대신문 기자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었던 동아리 등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자세히 다뤄서 읽기 좋았다. 또한 애독자 퀴즈와 같은 코너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도 원활하다고 느꼈다.

오지은(행정·2017)

사설

새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제19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다. 새 대통령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인가? 단순히 부강한 국가, 높은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튼튼한 안보 같은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주길 바란다. 지난 20년간 경제는 3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불행해졌다. 심지어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까지 자조하지 않는가?

어떤 국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행복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불평등과 격차가 작아야 행복하다. 예컨대, 소득의 행복에 대한 효과는 체감한다. 동일한 소득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 따

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북유럽 국가가 불평등한 미국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다. 실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에서는 다수가 함께 행복할 수 없다. 불평등과 격차가 크면 한정된 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이 격화된다. 적당한 경쟁은 사회를 활력있게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사회를 가혹한 약육강식의 정글로 바꾼다. 이웃과 친구를 적으로 인식하고, 살아남기 위해 편법을 자행하며, 행복의 원천인 공동체와 우정을 파괴한다. 승자조차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항시적인 압박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격차가 크면 내가 가진 것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수가 열등감에 빠져 불행을 느낀다. 새 대

통령은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복한 삶에는 소득과 물질 못지않게 자유시간, 여가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참다운 기쁨을 가져다주는 여가활동과 따뜻한 인간관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데 한국 직장인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길다. 북유럽 국가들보다 1년에 800시간을 더 일한다. 심지어 12시간 주야 맞교대의 살인적 노동이 행해지는 사업체도 적지 않다.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 후 자신의 삶은 곧바로 사라진다. 한국 직장인의 초장시간 노동은 법에 규정된 표준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위법의

결과이다. 새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로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나아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극심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셋째, 공적·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정치인, 검찰, 재벌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이 매우 낮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특히 검찰과 재벌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국민들의 욕망이 집중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확실하게 단행함으로써 공적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 또한 국민 행복을 위한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느림의 정치를 기대하며

드디어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지난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우리는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으며, 한동안 분노와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지금 우리는 새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 생긴 후보 및 진영들 간의 대립과 반복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지지하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아서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응원할 때가 되었다.

새 대통령은 큰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악화되는 대북관계, 쪼개진 민심, 심화

되는 빈부격차, 높은 청년실업률, 급격한 노령화, 가파른 인구절벽, 가계를 옥죄는 사교육,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며,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해결하고자 애썼던 문제들이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거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체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여러 정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서둘러 시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고 떠들어댔다. 실제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출산율을 높이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거나 대학을 개혁하기 위해 엄청난데 많은 세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대학은 개혁보다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데 급급하고 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행될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는 꾸준히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모든 지도자가 내 임기 내에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임자들이 한 일을 전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도입하고 나쁜 점은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말로만 백년대계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렇지만 똑바로 걸어갈길 기대한다. 이제 조급함의 정치보다는 느림의 정치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애.독.자.퀴.즈

부경대신문 이번 호도 열심히 보셨나요? 부경대신문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presside@pukyong.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일 제목에 정답을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학과와 학번, 성명,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추첨 후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2주 이내에 학생증을 들고 대연캠퍼스 나비센터(B12/구 제2학생회관) 3층 부경대신문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각 문항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아래 표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래 문항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가 정답입니다.

권 쟁 구 양 정 기 군 이 일 파 지
하 애 인 입 리 말 바 교 기 철
미 문 지 체 자 성 화 정 체 경 동

- 에 대한 학우들의 경각심과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지난 백경 대통령제에서는 많은 ○○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 시인은 매번 그 우주 속에서 ○○○이라는 시공간을 다시 발견했고, 사람을 보았으며, 세계의 비밀들을 엿볼 수 있었다.
-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 대통령'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 이번 선거 기간 중 몇몇 대선 후보자들이 ○○○ 논란으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다.
- 어떤 후보가 대통령답게 보인다면 후보의 ○○○를 제고하는 설득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 우리 사회는 ○○ 가정을 여는 가정과 다름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또한 얼마 전 대통령 후보 TV토론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 미세먼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의 ○○○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불평등과 격차가 크면 한정된 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이 격화된다.



제 22회 부경문학상

- 응모대상** 우리대학교 학부(과) 재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제외)
- 응모기간** 2017 .6. 26(월) ~ 2017. 10. 10(화) 오후 6시까지
- 당선작 발표** 2017년 11월 6일(금) 예정 (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
- 응모방법** pressjde@pukyong.ac.kr (E-mail 접수만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원고는 파일 제목을 학과, 학번,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첨부 파일 형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학과201300000나부경)
 - 메일 제목에 응모내역(예: 단편소설)을 표기해 주세요.
 - 메일 내용은 학과, 학번, 이름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쓴 원고만 응모 가능합니다. 동일한 원고를 유사 대회 등에 중복 투고하면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후 확인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당선작은 부경대신문에 지면화 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제2학생회관(나비센터/B12) 3층 부경대신문사
pressjde@pukyong.ac.kr / 010-3933-8521